

IPO시장 후끈... 롯데리츠·녹십자웰빙에 8.1조 몰려

<3.4조>

<4.7조>

롯데리츠, 공모 '사상 최대' 기록
녹십자웰빙, 경쟁률 657.66대 1
팜스빌, 청약증거금 1.7조 흥행
4분기 시장 투자심리 개선 기대



이병우 팜스빌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IPO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체된 IPO 시장에서 수요예측에 이어 일 반공모 청약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며 "많은 투자자가 차별화된 경쟁력과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시장의 미래 성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롯데리츠(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공모 리조 사상 최대 기록을 작성했다. 일반 투자를 대상으로 8일~11일 청약을 받은 결과 총 공모주식 수의 35%인 3009만4554주에 대해 19억 440만8730주의 청약이 접수됐다. 청약 증거금만 약 4조7610억원이 몰렸다. 이번 공모를 통해 롯데리츠는 약 4299억 원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자금은 롯데리츠가 롯데쇼핑의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제외한 잔여 점포의 매매대금으로 활용된다.

권준영 롯데AMC 대표이사는 "코스피 시장 상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상장 리조로서 국내 리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지속해서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능성 식품 제조업체 팜스빌과 핀테크 보안기업 아톤 역시 선전했다. 팜스빌은 수요예측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더니 11일 종료한 일반 청약에서도 6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증거금으로 1조7092억원이 몰렸다. 한국거래소와 협의를 마치고 오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오는 17일 상장을 앞둔 아톤은 수요예측에서 나타난 흥행기록을 청약에서 도고스란히 이어갔다. 지난 8일 마감한 청약 경쟁률에서 653.96 대 1을 기록했다. 아톤은 지난 1일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 결과 희망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었던 4만3000원에 공모 가격을 확정한 바 있다.

/송태화 수습기자 alvin@metroseoul.co.kr

2주 연속 국내주식형펀드 자금 순유입

주간펀드동향

0.40% 오르고 순자산 증가도
해외주식형펀드 0.07% 하락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주식형펀드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한 주간(10월 4~10일)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0.19% 하락한 2028.15포인트에 마감했다. 사이즈, 스타일별 지수는 한 주간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 대형주와 성장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마감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지수(MSCI) 월드인덱스(W

orld Index)는 전주 대비 0.76%,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 EM 지수는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글로벌 증시는 보합세를 보였다.

한 주간 국내주식형펀드는 0.40% 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정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영향으로 관련 업종의 강세가 나타났다. 지난 주에 이어 자금 유입(1670억원)과 순자산 증가(3890억원)가 함께 나타났다.

해외주식형펀드는 0.07% 하락했다. 지역별 분류에서는 중국 지역 관련 펀드가 상위에 오르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그 외 지역의 펀드 수익률은 모두マイ너스를 기록했다. 총 340억 원의 자금이 유출됐고, 순자산은 450억

원 줄었다.

국내 채권형은 순자산 감소(1596억 원)와 자금유출(1913억원)이 기록되며 연초부터 지속되던 주식시장의 자금유출, 채권시장의 자금유입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채권형은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자금유입(49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인덱스주식기타형인 'NH-Amundi 코스닥 2배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 [주식 - 파생형] Class A' (9.56%)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에서는 IBK 골드마이닝증권자투자신탁 1 [주식] 종류 Ce(1.79%)가 수위에 올랐다.

/손암지 기자 sonumji301@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 문서를 받고 있다.

/뉴스

美·中 무역협상 진전... 국내 증시 '안도'

주간증시전망

대형주 중심 매수세 집중

이번 주(14~18일)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협상 결과가 등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와 달리 11~12일(현지시간) 이틀간 펼쳐진 양국 무역협상에서 부분적 합의안이 도출되며 글로벌 증시 역시 안도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1일 코스피는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전 거래일보다 16.46포인트(0.81%) 오른 2044.61에 거래를 마쳤다.

주요 상장사들의 3분기 실적도 변수다.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와 일제히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주가 회복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증권사 지난내놓은 주간 전망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하나금융투자 2000~2050, 케이프투자증권 2030~2080, NH투자증권 2000~2060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협상을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곧바로 유여 있는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는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송태화 수습기자

7426가구 1순위 청약접수... 견본주택 13곳 '활짝'

분양캘린더

인천·전주 등 13개 지역서 분양
12곳 당첨자 발표... 4곳선 계약

10월 셋째주에 가을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화된다. 전국에서 7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청약접수는 전국에서 청약 일정이 있어서 수요자들의 시선이 바빠질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인천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 더 센트로', 전주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등 서울, 수도권 및 지방에서 개관을 준비중이다.

견본주택은 서울 '이수 스위첸 포레힐즈', 경기도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등 서울, 수도권 및 지방에서 개관을 준비중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주에는 전국 13곳에서 종 7426가구(오피스텔·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행복주택 제외)의 1순



한화건설이 전주에서 분양하는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줄을 서 있다.

/리얼투데이

위 청약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4곳에서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전국 13곳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오는 1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13 일원(전주에코시티 주상복합용지 1,2블록)에 공급하는 '포레나 전주 에코시티'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5층~지상 45층, 총 6

개동 규모의 복합단지다. 디에스종합건설은 오는 17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4블록에서 '루원시티 대성베르힐 2차 더 센트로'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5층~지상 49층 규모이며, 전용면적 84~170m² 아파트 1059가구와 전용면적 24~36m² 오피스텔 120실,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단지다.

대우건설은 오는 18일 경기도 여주 교동지구 도시개발구역인 여주시 교동 115~9일원에서 '여주역 푸르지오 클라테르'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같은 날 포스코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대전광역시 목동3구역 재개발 사업인 '목동 더샵 리슈빌'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대전 중구 목동 1~95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39~84m²로 구성되며, 총 993가구 중 71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이번 협상에 따라 미국은 15일 발효 예정이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사는데 동의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환율 문제도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인위적인 절하금지 등 환율협정을 타결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미국은 예정됐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기로 했다. 양측은 3~5주 이내에 최종 합의 내용을 문서화해 서명할 계획이다.

양국 무역협상 소식에 일희일悲했던 국내 주식시장엔 긍정적인 뉴스다. 비록 완전한 타결이 아닌 부분적 합의라 해도 그간 글로벌 금융시장을 압박해왔던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협상 파행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역시 되살아날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직접 압박하고 나선 점도 긍정적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합의 필요성은 양국이 교감한 채 일부 타결 가능성이 기본 시나리오인 만큼 이를 상회하는 합의만 도출돼도 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면 협상이 파행되면 전저점인 1900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태화 수습기자